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기술표준원은승강기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승강기 관리주체의자율적 책임관리를강화하는등을 주요골자로한 「승강기제조및 관리에관한 법률」(이하 승관법)을 전부개정하기위해6월8일입법 예고하였다.

승강기사고율은전반적으로감소추세이나, 승강기 설치대수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사고건수는 증가하고있어, 기술표준원뒀년4월에발표한 「승강기발전로드맵」을 근간으로승관법전부개정안을마련하였다.

\* 승강기1만대당평균사고건수( '93- '95)2.4건 →( '96- '06)1.2건  
 \* 사고건수: '00(22건), '01(28), '02(16), '03(40), '04(25), '05(42), '06(90)

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승강기관리주체(소유주 또는 관리사무소장)의자율적 책임강화를위해 관리주체는일상점검을의무적으로실시하여야 하고, 승강기결함이있다는사실을알면서도이를 즉시 보수하지않아중대한사고를발생시킨경우 형사처벌3년이하의징역 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을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안전사고위험성이

높은 노후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고장 예방 인원이 불명확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 권고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승강기의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보수업체가 보유한 기술 인력은 모두 시·도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술 인력은 승강기 보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보수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은 전문 교육 이수 특유의 무화하였다.

또한, 중소 보수업체 왜로 사항인 보수용 부품의 원활한 공급 마련을 위해 보수업자가 부품 제조업체에 부품 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의 무적으로 공급(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였다.

승강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인증 제도를 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상정지장치 등 5개 강제인증대상 승강기 부품 이외의 부품에 대하여도 제조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과의 등장 심사 또는 시험 성적서를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91년 법 제정이 후 총 9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 등으로 법 체계가 복잡하여 조문을 장(章), 절(節)로 재구성함으로써 국민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0일간의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시판 전기용품 안정성 조사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멀티콘센트·모발건조기·핫플레이트에 대해 소비자 안전 주의 보기가 발령됐다.

기술 표준원은 시판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 멀티콘센트·모발건조기·핫플레이트 품목에서 사용 중 안전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술 표준원은 소비자 안전 주의 보를 발령하고, 불량 제품에 대해 개선 명령 및 안전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멀티콘센트의 경우에는 8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온도 상승·감전 보호량이 확인되어, 여러 개의 전기 제품을 꼽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모발건조기의 경우, 13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충전부의 절연 거리 미달 등 구조 불량 확인, 사용 시 손가락 등의 피부가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됐다. 핫플레이트는 6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이상 온도 시험 불량이 확인, 급격한 온도 상승이나 과열로 인한 열관 변형 등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전성조사는사이버쇼핑몰·합인매장·전문매장등에서판매되고있는진공청소기·전기주전자·전동칫솔등 13개 품목133개 제품에대해전기용품안전관리법안전기준및 표시규정적합성을확인하였다.

한편, 기술표준원(총)절기불법·불량전기제품에 의한안전사고예방을위해선풍기·전격살충기·훈증살충기·빙삭채 15개 품목에대해제조·수입·판매업자를대상으로7월안전성조사사건예고및기술세미나를실시하였다.

기표원은이번조사대상시료를사이버쇼핑몰·대형매장·전문매장등에서구입, 안전성조사를실시, 그결과에따라행정조치또는소비자제품안전주의보를발령할계획이다.

그간전기용품에대한안전관리는사후불시단속위주로이루어졌으나, 작년하반기부터안전성조사일정및 품목등 사후관리계획을사업자에게사전설명·공고하는사전예고적안전관리로바뀌었다. 이를통해사업자 스스로불법·불량제품유통을방지토록하고있으며안전성조사에서적발되는제조·수입·판매업자에뉘중한행정조치를취하고있다.

아울러기표원은지난4월에발족한제품안전감시단을통해불량제품유통을지속추적감시, 불량제품유통근절에노력하고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술표준원(총)어린이들이안심하고뛰어놀수 있는 놀이터를만들기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안전검사·인증·안전교육의절차와안전사고배상에대한방법과절차를골자료하는「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하“놀이시설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령(안)을‘07.6.13(수)에 입법예고하였다.

※ 어린이놀이시설(총)개부처6개법령에의해분산관리되어 안전관리체계가미흡하다는지적이있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안전관리를위해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 제정· 공포(07.1.26)하였으며 08.1.27 시행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의 주요내용]

“놀이시설법에 의해 관리되는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실내·외놀이터에놀이기구등고정시켜설치하는것으로명확히하였다.

안전검사기관의지정기준은국제기준에서요구하는사항을만족하게하고, 관련설비와인원을보유토록하여전문성을높였다.

안전검사기관업무관리의공정성확보를위하여검사기관의지정및최소절차를규정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의체계적안전관리를위하여안전검사와인증의절차와방법을규정하여안전기준에 부적합한제품의수입이나유통을근본적으로방지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였다.

어린이의놀이시설로인한안전사고배상과관련하여 관리주체와안전검사기관에게가입토록한손해배상보험의종류와가입절차등을규정하였다. 안전사고에의한배상근거(배상최고금액8천만

원)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고 피해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시민단체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의 일환인 안전감시원의 위촉·운영을 통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이 전문조직, 인원, 강사 등을 보유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 주기 및 시간을 구체화하였다.

기술표준원 등 동 법령(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업계 및 관리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6월 22일(금)에 개최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금년 9월 경제정·공포할 예정이다.

동 법령이 제정·시행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최근 문제되었던 어린이놀이터 바닥 모래 등의 중금속 오염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주변의 설치물 등에 의한 각종 위험 요소가 근절되어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기구의 방부목재(CCA계) 사용 금지 규정은 이미 시행중(07.3.23)이며 놀이터 바닥 모래 등에 대한 오염기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나노기술 안전성평가 국제표준 한국이 주도

나노기술 안전성평가 국제표준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흡입독성평가용 나노노입자의 발생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국제규격안 2종\*이 국제표준화기구(ISO/TC 229(나노기술분야))\*\* 기술위원회 의 승인 받았다.

\* 국제규격안 2종 : 흡입독성시험용 나노노입자 발생 (Generation of silver nanoparticle for inhalation toxicity testing), 흡입독성시험용 나노노입자 모니터링(Monitoring of silver nanoparticle in exposure chambers for inhalation toxicity testing)

\*\* ISO/TC 229 : 나노기술분야의 전반적 표준화 추진을 위해 '05년 4월 설립된 ISO 기술위원회. 현재 4개국의 정회원국과 9개국의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가 제안한 국제규격안 2종은 ISO/TC 229의 24개 회원국 대상 투표결과 18개국의 찬성을 획득, 4~8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각국의 의견 수렴 및 구체적인 국제표준(안) 작성 작업(WD, Working Draft)을 시작하게 됐다.

\* 은나노입자의 발생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표준

(안)은, 대표적나노제품으로부상된은나노제품의 유해성문제가무역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에대비해 개발됐다. 월월 ISO/TC 229 기술위원회에제안, 3개월간회원국에회람된후 지난4월17일 승인됐다.

우리나라의제안이최종적으로국제표준으로제정될 경우 은나노뿐 아니라구형을가진나노입자의 농도도모니터링에적용할수 있으며나노입자의유해성확인과정평가에 획기적으로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이번ISO/TC 229 국제표준화회의에서는, 의약품표면처리에서사용되는 '제초나노물질인이산화규소(SiO<sub>2</sub>)의 인체유해성평가방법' 표준화예한 제안발표도진행, 나노안전성평가표준화분야우리나라의국제경쟁력업증하게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나노기술안전성 분야에서 나노기술상용화의 걸림돌인 나노제품의 인체유해성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을 주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나노제품의 수출을 견인하는 등 국가간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



재난관리 표준화 중장기 추진 계획

기술표준원은 재난을 예방·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복구하기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 표준화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 추경이다.

이는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재난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미국 올란도에서 개최된 제3차 정기 총회에서 「재난관리 가이드라인 영문 규격 초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재난관리 가이드라인은 지진, 해일, 국제적 테러 등의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국가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고 국제 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표준화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자는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ISO의 재난관리위원회에 새발종인 재난관리 관련 최초의 국제 표준이다.

동 중장기 추진 계획은 재난 관리에 관한 국가 표준의 제정 및 인증 제도 마련, 전문가 양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 생활 규범 표준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시스템 도입 되면 평상시 발생 가능한 재난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 시스템을 유지 관리 하야고 발생 시 조업을(업무수행) 하락을 최소화 시키고, 응급 대응 좋 하여 조업의 원상 복구 소요 시간을 단축 시키는 효과가 있다.

재난관리 표준은 공공 분야와 민간 기업에도 두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304개 공공기관과 1만여 개의 관리 대상 주요 시설 물 을 비롯 하여 종업원 50인 이상 인 85,000개의 민간 기업 등 15만여 개의 조직 과 시설 물 이 이에 해당 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은 '재난관리 표준화의 국제 동향 분석' 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하여 소방 방재청 과 공동으로 6월 27일 코리아

나한텍에서 「재나관리포럼」채세미나를 개최하  
수소연료전지 국제표준 세미나

친환경미래형에너지로각광을받고 있는수소·연료전지의국제표준화에한·중·일이공동으로 대응하기로하였다. 수소· 연료전지분야일본, 미국등 선진국을중심으로자국의기술을표준으로 반영시키기위해치열히경쟁중이다.

기술표준원은한·중· 일국제표준공동대응을위한수소연료전지국제표준세미나를6월8일(금) 서울 팔래스호텔에서개최하였고,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와중국표준협회「가수소에너지표준화공동대응을위한MOU」를 체결하였다. 아울러수소연료와 수소감지기국제표준화회의가6월6일(수)~6월9일(토) 같은곳에서개최되었다.

수소는화석연료를대체할유력한에너지원으로, 세계적으로수소의제조· 저장· 이용에관한3대 핵심기술과수소를연료로사용하는연료전지시스템의 개발· 보급사업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 우리나라도2006년부터2년간900억원의예산을투자하여“ 연료전지자동차” 가정용연료전지시스템”의모니터링사업을진행중에있다.

이번에개최되는국제표준화회의는수소연료와수소감지기에대한국제표준화작업반회의로, 우리나라에서는처음으로개최되는것이다. 수소연료표준화는연료전지자동차에사용되는수소연료의 품질기준을정하는데주력하고있으며, 수소감지기는 수소시스템의누출수소를감지하는장치로세부규격을정하는표준화가진행중이다.

이번동북아수소연료전지분야협력체계구축으로, 한· 중· 일3국간기술교류와국제표준화활동이활발해질전망이다. 또한금번회의개최를시작으로 2009년에는ISO/TC197(수소에너지)와IEC/TC105(연료전지) 국제표준화회의도우리나라에서개최될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향후 태양광, 풍력분야등 신재생에너지국제표준전반에대한동북아공동대응체계를구축하고, 이를바탕으로국제표준을주도해나갈

「에너지경영시스템」국제 컨퍼런스



고유가로에너지절약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절약기법인 「에너지경영시스템(EMS)」이 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다. 미국, 덴마크, 영국등 8개국이에너지경영시스템표준으로 제정하고인증제도를실시 또는 준비 중에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유럽표준화기구(CEN)와 공동으로TF팀을작년11월에구성하여 09년 제정을 목표로국제표준화작업을추진중이다.

※ ISO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EN (유럽표준화기구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에너지경영시스템으로 알려진 ISO9000(품질경영)과 ISO14000(환경경영) 등 과 유사하나, 에너지 측정· 분석에 첨단 기법을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법 도입 후 3M사의 경우 5%에서 20%까지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다.

※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에너지 경영 계획, 실행, 운영 전반 사항을 자율 규정하고 공인기관 인증 3자가 이행 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시스템 인증 제도

※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990개 국내 기업이 EMS를 도입하여 10%의 에너지를 줄인다면 연간 에너지는 7,315천 toe, 비용은 1조 8천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기술 표준원은 국제 수준의 EMS 국가 표준과 인증제도 도입을 위하여 에너지 관리공단과 함께 해외 에너지 경영 전문가를 초청하여 6월 15일(금) 오전 10시부터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방한한 유럽표준화기구(CEN)의 TF팀 의장인 마리오렌즈(Mario de Renzio)는 유럽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국제 표준화 계획을 소개하였고, 유엔공업개발기(UNIDO)의 로버트 윌리엄스(Robert Williams)는 UN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과 EMS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로렌스버클라 국립연구소에 이미 맥케인(Aimee McKane), 조지아공대 기업 혁신 연구소 윌리엄 머펫(William Meffert)과 덴마크 에릭 거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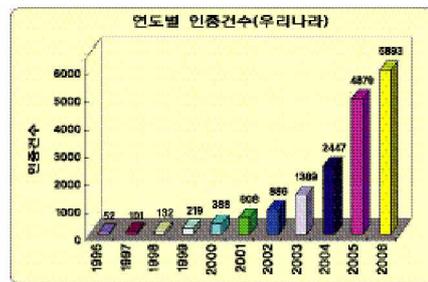
(Erik Gudbjerg)는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효율 정책 현황 및 EMS 실시 실태와 도입 계획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EMS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EMS를 기존 에너지 절약 제도(자발적 협약 제도, 기후 변화 협약 등)와 연계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이 주대를 위한 후관전에 에너지가 특히 저차  
**06년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건수 증가**  
 이다.

환경경영이 글로벌 경쟁력의 필수 사항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이를 국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해주는 환경경영시스템(KS A ISO 14001) 인증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96년 제정된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도 입· 운영 중인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건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5,89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인증건수가 불과 5~6년 전만 해도 1,000건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04년 2,447건으로 늘어났고, '05년 4,879건으로 경 추뎠어 올랐다.

현재, 전체 인증건수의 5%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획득 분야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지자체), 교통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인증이 급팽창하게 된 것은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의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EU의 각종 환경규제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확산되면서, 환경경영을 통한 능동적인 대응 없이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기업 경영 문화가 정착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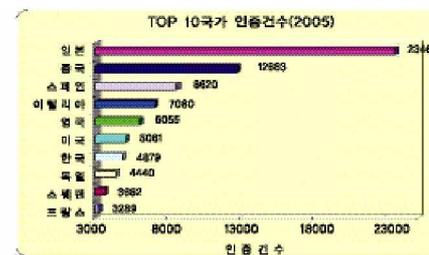
또한, 요즘 소비자들은 웰빙이나 로하스 문화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환경경영을 통한 환경성 개선으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경영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로 글로벌 기업들도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기업의 환경경영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05년 기준 111,162건의 인증을 기록했는데, 인증건수가 인증초기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23,466건으로 가장 활발하며, 중



국(12,683), 스페인(8,620), 이탈리아(7,080), 영국(6,055) 순이며 우리나라는 '04년 10위에서 '05년 7위로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 기업들이 대외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에 갱신되기를 주고 SR(사회적책임)의 일환으로 환경경영을 적극 도입·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경영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환경경영대상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 **LABCON plan 민· 관 협력지원 체계 구축**

우리 중소기업이 EFTA의 파고를 뛰어넘어 수출 5천억 달러의 기술강국 코리아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개발 기술제품의 발굴· 지원 사업을 펼친다.

기술표준원은연구실단계에있는신기술제품을발굴하여기술평가및멘토링하는랩콘플랜민·관협력지원사업을위해6월12일기표원국제회의실에서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기술평가원9개기관과함께MOU를체결하였다.

이번협력사업은점점심화되고있는기업양극화현상과FTA등자유무역체제가속화등으로인해,중소기업은신기술제품개발없이세계시장에서살아남기어렵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상시민·관협력지원체제를구축·운영함으로써,동안여러기관들이별도로추진하던기업지원프로그램간의협력과전문가인력풀(Pool)의공유가능해져서신기술제품발굴·지원사업의시너지를창출하여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한취지이다.

랩콘플랜민·관협력지원사업은발굴·평가·멘토링지원의3단계로추진되며,세부내용은아래와같다.

①중소기업개발신기술제품발굴협력

- ▷한국산업기술평가원,부품소재·산업진흥협력R&D지원사업으로개발된신기술제품의발굴을위한협력추진
- ▷한국산업단지공단의지역클러스터를거점으로하는지역소재기업의유망신기술제품발굴을위한협력추진
- ▷산자부15대전략기술관련신기술제품발굴협력(로봇기술·부천산업진흥재단)

②발굴제품에대한기술력평가협력

- ▷분야별4대학회를통해발굴신기술제품의평가및멘토링을실시

③기술멘토링지원협력및신기술인증연계

- ▷기술표준원의단기기술멘토링프로그램및한국산업기술재단의1사1전문멘토제와연계한심층기술멘토링(6-12월)실시

▷기술력평가및기술멘토링을통해기술성숙인증제품에대한신기술제품인증을EP및대한민국1대신기술선정등으로추진

기술표준원은협력지원체제의원활한운동을위해업무협약MOU체결과동시에랩콘사무국을개설하는한편,협력기관실무자를중심으로실무협의회를구성하여협력지원사업의구체적이행계획을수립하고,신기술제품발굴·지원이외에도기술규제대응,표준화협력,신기술·신제품평가방법개발지원등기타공동관심사항에대한협력사업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이번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을통한'중소기업개발신기술제품발굴·지원사업'으로정부지원R&D결과물등의숨어있는신기술제품을적극발굴하여글로벌무한경쟁시대에서우려중소기업이생존경쟁력을갖추도록하며,아울러,기관간기업지원사업의중복성을방지하고,전문기쁨의운동을내실화하는등협력을통한예산절감과지역클러스터를통해지방중소기업의지원확대가가능



2007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 시상식에서서시작중만성상에는기여를알것으로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콘크리트관련기술자들의사기를고

취하고, 콘크리트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지난3월부터4월까지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입상20개팀(일반부10팀, 학생부10팀)과 콘크리트기술유공자1명)를 선정하여6월 20일

▶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 시상식개요 ◀

- 일시: 2007. 6. 20(수) 15:30-16:10
- 장소: 기술표준원중강당
- 기술경연내용
  - 125개팀(일반부90, 학생부35)이 참가하여콘크리트배합 설계능력과공기량· 슬럼프· 강도등에대한현장기술경연
- 수상자
  - 대회입상팀(개팀)
  - 일반부: (주)우경산업 1등개팀
  - 학생부: 목포대학교 1등개팀
  - 기술유공자: 유진기업(주)기술연구소장류득현(상 유공)

(수), 기술표준원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시상식전 「환경및 특수기능콘크리트」 「미래의 콘크리트등에 관한기술세미나를함께 개최함으로써미래지향적인콘크리트산업의기술개발방향을 널리알렸다.

금년도기술경연대회수상자를살펴보면, 유공부문에서대통령표창을수상하게된 류득현(유진기업(주)기술연구소) 소장(영) 19년간콘크리트기술분야에서생산성향상을위한공정· 설비개선및 신기술개발과기술전파를위해 헌신해온 점을높이 평가하여최고의콘크리트기술유공자로선정되었으며, 기술경연부문에서는일반부의(주)우경산업(우경산업팀), 학생부목포대학교(H.S.C팀)가 최고 기술보유팀으로선정되어이번 대회 최고의 영예인국무총리상을각각수상하였다.

금년도대회의특징은일반부의경우 콘크리트의

품질목표값을기존의보통콘크리트(27MPa)와 함께 고강도콘크리트(50MPa) 제조기술을소재로제시함으로써점차고층화되고있는건축물의변화추이에부응하도록하였으며, 특히건축· 토목분야의 대학생이참여하는학생부경연대회의기술력이에년에비해한층향상된 것으로나타나전문가들로부터 콘크리트산업발전에청신호라는평을받고 있다.

앞으로기술표준원은동 경연대회를획기적으로개선하여건설인들의축제로승화시키면서정부포상훈격을상향· 확대함으로써본 대회가콘크리트산업 발전에활력소역할을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신제품 인증업체 및 구매기관 워크샵

NEP인증 신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구매를촉진하기 위하여신제품(NEP) 인증업체와구매· 설계담당자등 500여명을초청하여27일, 28일양일간강원도 홍천에있는대명비발디파크에서“ 신제품 인증업체및구매기관워크샵”을개최하였다.

FTA를 계기로촉발된글로벌무한경쟁시대에우리 중소기업이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

서는 신기술제품개발이 필수적이고, 또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가 확대되어야 하나, 아직 시장의 현실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기관에서 신제품 구매가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일부 구매기관에서는 NEP 인증 신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어, 이번 워크샵에서 신제품 인증 기업과 구매기관 담당자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직접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상호 간 이해 심탄 회한의 견교환이 필요하 재문이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NEP 인증 제도 소개 및 개선 방향 (기술표준원) 뿐만 아니라 판매 지원 제도 및 공공기관 구매 실태 (산업자원부), NEP 인증 제품 유통 판매 제도 (기계공계조합), 기술 신용 보충용 전략 (기술 신용보증기금) 등 신제품 인증 업체 및 구매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의 발표 및 토론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서울대 오연천 교수가 우리나라 경제 현황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강연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신제품 인증 업체와 구매기관 간 서로의 애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의견교환의장”과 “화합의장” 시간도 마련되어 제조자와 구매자가 상생협력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구매기관에서의 NEP 인증 신제품 구매 확대는 물론 민간 대기업까지 구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07 국가환경경영대상 정부포상식

환경경영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및 유공자를 치하하고 산업계의 환경경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7 국가환경경영대상 정부포상식」이 6월 28일(목)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장에서 오영호 산자부 차관, 이규환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제발전과 환경의 상생 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정부포상식에서는 기업체·단체·제품 부문에 대통령상 3개, 표창의상(賞)과 유공자 부문 산업훈장 및 포장각 1개 등 20개의 표창(表彰)이 수여되었다.

이번 포상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환경협력을 통해 환경경영 노하우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성과 환경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산업 수출진흥상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올해 기업체 종합 부문 대통령상에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개발·보급하고 중소기업에 친환경 관리 노하우와 청정생산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등 환경경영 확산에 공헌한 현대자동차(주)와, 철저한 경유해물질 관리로 새가구 증후군을 예방하고 폐가구 수거 서비스를 통해 가구의 재활용을 촉진시킨 (주)리바트가 선정되었으며, 제품 부문 대통령상에는 친환경 설계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 유해물질을 배제, 재활용률을 높여 제품의 전과정에 환경성을 반영한 LG전자(주)의 휘센 에어컨이 뽑혔다.

유공자 부문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TV와 모니터의 개발과정에 친환경성을 도입하고 고속기업



의 녹색구매를 확대· 적용 한공로로삼성전자(주) 홍창완전무가동탑산업훈장을, 건설분야에 환경친화적공법 개발 및 기술 개선 공로로현대건설(주) 박경호상무가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하였다.

산업자원부오영호차관은축사를통하여국내외 환경규제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글로벌시대에기

업 경쟁력과가치를높이기 위해서는환경경영을 통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고환경친화적인제품을 생산해야한다고강조하고, 이반행사를계기로우리기업이경영방침에친환경성을우선고려하고제품생산및 서비스활동에서환경경영시스템을확대· 적용함으로써지속가능한발전의기틀을마련하길기대한다고밝혔다.

| 기술표준2007. 7

